

第二回

秋史先生追慕全國書藝白日場

受 賞 作 品 展

서울

日時…一九九一年九月三日～九月六日
場所…國立中央圖書館展示室

禮山

日時…一九九一年九月一〇日～九月十四日
場所…禮山文化院展示室

主催…秋史金正喜先生記念事業會
主管…社団法人禮山文化院

審查委員長

原谷

金

基

昇

審查委員

如初

金

廣

顯

近園

金

洋

東

南田

元

仲

植

玉峰

趙

基

順

靜香

趙

柄

鎬

松石

鄭

載

興

嘉軒

崔

完

秀

書藝精神 繼承再現

金 鎮 佑 (秋史金正喜先生 紀念事業會會長)

人類가 낳은 가장偉大한藝術家의 한분이신 秋史金正喜先生の 第二百五週年 生誕을 맞아 지난 七月 十四日 禮山郡 新岩面 龍宮里 故宅에서 秋史先生の 世界史的인偉大한 藝術과 學德을 追慕하며 本會가 主催하고 禮山文化院이 主管하여 開催한 第二回 秋史先生 追慕 書藝白日場(揮毫大會)을 여러분의 聲援과 鞭達의 德으로 盛大하게 成功의으로 마친데 對하여 聲援과 鞭達하여 주신 여러분께 衷心으로 再三 感謝드립니다.

특히 公正한 審査를 하여 주신 審査委員長 原谷 金善昇先生님을 비롯한 審査委員諸位와 協力 全州에서 奉迎히 오셔서 品格높은 國樂演奏로 協助하여 주신 全羅北道道立國樂院 여러분께 다시 깊은 感謝를 드립니다.

또다시 本會는 위 白日場(揮毫大會)에 있어서 秋史先生의 追慕事業의 一環으로서 위 白日場(揮毫大會)에 入選한 作品들을 秋史先生의 故鄉인 禮山과 서울에서 여러분의 聲援에 힘입어 展示하게 된것을 無限한 榮光으로 생각합니다. 이 展示를 뒷받침하여 주신 京鄉各地의 여러분과 바쁘신 時間을 내시어 觀覽하여 주시는 여러분께 깊은 感謝를 드립니다. 다만 時間과 經費等 不得已한 事情으로 表具를 完全의 하지 못한데 展示할을 大膽히 露懷하게 생각합니다.

옛 白日場을 再現함으로 해서 現場의 施設이 매우 不便하였을 면에도 入選된 作品들은 그 水準이 國展에 入選한 분이 或은 豫選에서 或은 本選에서 같이 展示를 못하게 된분이 많은 계신點을 감안된 일이오나 諒解를 바랍니다.

이 展示는 秋史先生의 偉大한 書藝精神이 오늘에 繼承再現되기를 祈願하는 뜻에서 開催하는바치 아 무 조 록 이 展示를契機로 秋史先生의 偉大한 藝術과 學德을 잇는 많은 훌륭한 書藝家와 學者가 輩出되기를 삼가 바랍니다.

그리고 江湖諸賢의 기탄있으신 諫諍과 高貴하신 鞭達을 삼가 믿어 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秋史先生의 生誕日을 기하여 來年에도 있을 白日場(揮毫大會)과 그밖의 本會事業에 많은 協助과 鞭達을 仰託드리며 바쁘신中 觀覽하신 여러분께 거듭 感謝드립니다.

그리고 이 展示를 위하여 애써 주신 本會副會長이신 禮山文化院長님을 비롯한 여러분과 本會任員여러분의 勞苦에 感謝드리며 場所를 빌려 주신 國立圖書館長님께도 고마움을 표합니다.

秋史先生的 書藝精神을 繼承

朴 鍾 淳 (禮山郡守)

寶鏡을 約束받은 가을이 성큼 다가선 이때 이 뜻깊은 秋史先生追慕 全國書藝白日場 全國書藝白日場 受賞作品展을 眞心으로 祝賀드립니다.

이번 두 번째로 갖는 秋史先生追慕 全國書藝白日場 受賞作品展은 秋史先生이 남긴 格調 높은 文化와 秋史先生의 偉大한 書藝精神을 繼承 發展하는 새로운 里程碑가 될 것입니다.

이번 受賞作品展은 그하나 하나가 全國書藝人이 精誠스럽게 화선지에 수많은 珠玉같은 作品으로 創作 意趣와 藝魂이 結果된 優秀한 作品들이라 믿어지며 많은 분들의 聲援과 觀覽을 勸誘하는 바입니다.

이번 展示會가 우리고장 文化藝術 進興에 크게 寄與하면서 나아가 『자랑스런 禮山 文化創造』 寶鏡로운 禮山建設을 위한 기틀진 土壤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英國 사람들이 말하기를 『大英帝國은 줄수 있어도 새익스퍼어는 내 놓을 수 없다』는 自負와 矜持만 보더라도 文學과 藝術이 한나라의 興隆에 얼마나 큰 影響이 있는가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한 時代의 文學이나 藝術作品이 作家 한사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時代 知性的의 代辯이며 그 時代를 사는 모든 사람들의 思想과 價值觀의 公約數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秋史先生追慕 全國書藝白日場에서 뛰어난 創意力과 嶄新한 기풍으로 入賞의 榮譽을 차지하신 受賞者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아낌없는 聲援과 祝賀를 드리면서 至誠어린 마음으로 뜻깊은 受賞 作品展을 준비하여 주신 李恒觀 禮山文化院長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感謝를 드립니다.

秋史先生追慕 全國書藝 白日場에 臨한 所感

金 基 昇 (審査委員長)

人生은 짧고 藝術은 길다 하였다. 藝術은 한 나라 한 민족을 文化向上 시키는 데 큰 要素가 되었다.

특히 秋史先生의 篆書나 隸書는 中國의 篆隸와 같이 大膽하게 結構되어서 布字가 不整然한 것과 點劃配置가 不自然한 것 같으나 非徒中法으로 行行에 詭法이 있고 字字가 生動하다. 秋史의 筆法을 모방한 書家가 많으나 아직껏 生動하는 秋史書에 달할 道理가 없다. 이로써 秋史의 書藝術을 再認識하게 되었다. 造形藝術에 非具象派가 流行되는 이 時代에 秋史는 韓國의 前無한 大書藝家로서 아니 東洋屈指의 名筆으로서 아니 世界的 藝術家로서 指名하게 되었으니 秋史는 우리國家와 民族藝術向上에 功勞가 크다.

나는 秋史의 誕辰日인(陰 六月三日) 七月十四日 第二回 秋史先生 追慕 全國 書藝 白日場의 審査委員으로 招待를 받고 公의 誕生地인 新岩面 龍宮里에 가서 全國에서 露第해 온 書家들의 競書하는 것을 보고 完成된 많은 書作品들을 다른 審査委員들과 같이 精密한 審査끝에 入選, 特選, 入賞作品들을 골라서 施賞까지 하게 되었다.

書藝作品은 昨년에 比하여 월등히 向上 되었고 外地에서 온 人士나 當地에서 온 人士가 다 秩序를 지키고 應募作家들도 秋史의 遺訓인양 愛國愛族의 精神이 발휘되어 있었다.

今番 大賞을 획득한 作品은 書法의 傳統과 自己 나름대로의 筆法으로 쓴 優秀한 作品이었다. 漢文, 臨書, 國文, 文人畫(梅蘭菊竹) 등 다 아름답다 하였다.

秋史先生 紀念事業會와 禮山文化院 여러분들의 勞苦를 眞心으로 感謝한 말씀을 드리고 應募하신 書家 여러분에게 書藝는 永遠한 것이니 秋史先生의 學藝精神을 이어 받아 앞으로 勤勉用進 無窮한 發展을 비는 바이다.

秋史先生追慕 全國 揮毫 審査 所感

金 牌 顯 (審査委員)

秋史先生 紀念事業會와 禮山文化院이主催한 先生을追慕하는 揮毫大會가 二回에 걸쳐 實施되었다.

本來 秋史先生을追慕함에 있어서는 多角度로 展開하여야 할 分野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하나 近者의 趨勢로 보아 가장 손쉽게 여겨지고 또 펼칠수 있는 分野가 곧 先生을追慕하는 意味의 揮毫大會라 여겨져서 이 事業에 먼저 손을 댈것 같다.

餘他的 揮毫大會와는 달리 秋史追慕에 目的을 둔만큼 書題를 先生의 詩文中 摘句한 다거나 先生의 遺墨에서 臨書의 거리를 擇한다는것은 常識이다. 그러나 第一回가 그렇지 못하였던 듯 하였다. 第二回 부터는 이렇듯 性格을 뚜렷이 하였다는 것이 多 少이었다.

그리고 이 揮毫大會에는 全國에서 모이는 書學者들이 應하였으므로, 玆 豫選을 거쳐 本選에 參加한 近 二百餘名의 技倆 多품은 그야말로 불이 뛰는것 같은 麗光과 손놀림으로 二時間餘의 沈黙 가운데 많은 秀作이 產出되었다.

이들의 書法造詣가 거의 均等한 水平에 올라가도 하였거니와 漢・脫字의 比率이 上昇되고 있음에 또한 驚愕하지아니할 수 있었다.

一段 豫選에 捲었다면 一定한 水準 以上이라는 것이 認定되었음을 알리는 것이며 이들을 가운데에서 大會所定의 命題를 自由自在로 揮筆할 수 있고 또 結構와 章法에서 무르지 아니한다면 그 水平을 알만 한지라 여기서 入 特選乃至 次下, 次上, 壯元에 뽑힌다는 것은 全國書壇에서 뚜렷한 位置에 놓일 수 있다는 自負를 가져도 無妨할 노릇이다.

다만 이들의 實力을 다룬다는 審査委員도 함께 이 大會의 命題를 한자리에서 揮毫하여야만 하겠다는 所信이 第三回 부터는 實現되어 이 大會에 있어서 書風點睛의 빛남을 보았으면 한다.

(漢文部)

好古有時搜斷碣
研經婁日罷吟詩

(臨書)

般若波羅蜜多心經

(한글부)

옛것 좋아서 때로 깨어진 비갈을 찾고
경전 연구로 며칠은 시를 못 읊다

(文人畫)

自由(梅、蘭、菊、竹、中)

好古有時搜斷碣
研經婁日罷吟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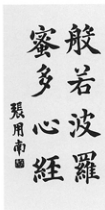
辛未仲夏 怡庵 金龍錫 題

般若波羅
蜜多心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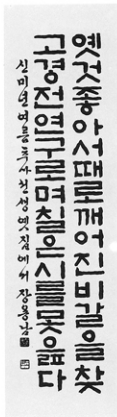
臨 怡庵 金龍錫 題



碧下：崔 炯 柱(서울, 강서구)



도운：張 用 南(서울, 송파구)



好古
有日
時搜
斷吟
碣研
詩

辛未夏同山任仁燦

同山：任 仁 燦(서울, 강남구)

好古
有日
時搜
斷吟
碣研
詩

嘉研李花守

嘉研：李 花 守(경기, 과천시)

般若
波羅
蜜多
心經

李花守

好古
有日
時搜
斷吟
碣研
詩

金鋪泰

鳥邨：金 鋪 泰(전북, 전주시)

般若
波羅
蜜多
心經

鳥邨金鋪泰

好古有時搜斷碣
經妻曰罷吟詩

崔孝植
四

般若波羅
蜜多心經

所著崔孝植書

好古有時搜斷碣
經妻曰罷吟詩

辛未小暑後七日古山崔銀哲書

般若波羅
蜜多心經

辛未夏月古山筆

옛것 좋아하거 때를 때어친 비참을 차운
경전 영구로 여쭙은 시를 웃음하

고사 권성규의 회로 회에서 쓴 글

好古有時搜斷碣研經
婁日罷吟詩

禹且權

黃山：禹且權(서울, 강남구)

好古有時搜斷碣
研經婁日罷吟詩

辛未夏河林崔容準

河林：崔容準(서울, 도봉구)

好古有時搜斷碣
研經婁日罷吟詩

秋史先生遺基全國書堂日場
辛未夏日中河金建杓

中河：金建杓(대구, 동구)

好古有時搜斷碣研經
婁日罷吟詩

錦昭金貞子

錦昭：金貞子(서울, 송파구)

好古有時搜斷碣
研經婁日罷吟詩

秋史先生遺基全國書堂日場
孫賢周

東園：孫賢周(전북, 군산시)

好古有時搜新碣
經案白罷吟詩

辛未夏月
張慶烈
書

玄城：張慶烈(서울, 서초구)

好古有時搜斷碣
經案日罷吟詩

心松李仁鎔
書

心松：李仁鎔(서울, 노원구)

好古有時搜斷碣
經案日罷吟詩

鄭盛元
書

灌木：鄭盛元(전북, 이리시)

好古有時搜斷碣
研經案日罷吟詩

辛未夏月
研丁金範洙
書

研丁：金範洙(전북, 전주시)

옛것 좋아서 때를 깨어 진비갈을 찾았고
 정친 연가도 며칠은 시를 읊어 읊나
 누사 회호 회성 제문 등 반석 회흥구

옛것 좋아서 때를 깨어 진비갈을
 찾았고 정친 연가도 며칠은 시를 읊어
 읊나 누사 회호 회성 제문 등 반석 회흥구

옛것 좋아서 때를 깨어 진비갈을 찾았고
 정친 연가도 며칠은 시를 읊어 읊나
 신이년 여름 누사 천성 백일 장에서 천용범



芽林：張秀娜(전북, 군산시)



松江：吳守哲(전북, 군산시)

이목：周永甲(부산, 남구)

반석：崔弘圭(서울, 강동구)

별생：全龍範(경기, 안산시)

好古有時搜斷碣
研經婁日罷吟詩

辛未夏舒庵李長煥

舒庵：李長煥(서울, 강동구)

好古有時搜斷碣
研經婁日罷吟詩

靜山梁正鎭

靜山：梁正鎭(광주, 동구)

好古有時搜斷碣
研經婁日罷吟詩

辛未夏竹田梁喜錫

竹田：梁喜錫(서울, 도봉구)

好古有時搜斷碣
研經婁日罷吟詩

辛未夏平山

平山：宋根福(경기, 수원시)

好古有時搜斷碣
研經婁日罷吟詩

晉齊姜天主

晉齊：姜天主(서울, 서초구)

好古有時搜斷碣
研經婁日罷吟詩

辛未仲夏穀巖金一性題

穀巖：金一性（서울·송파구）

好古有時搜斷碣
研經婁日罷吟時

辛未仲夏松軒朴明培題

松軒：朴明培（서울·도봉구）

好古有時搜斷碣
研經婁日罷吟詩

辛未小暑素川金榮培題

素川：金榮培（경기·부천시）

好古有時搜斷碣
研經婁日罷吟詩

辛未季夏上浣一松尹榮圭題

一松：尹榮圭（서울·강서구）

好古有時搜斷碣
研經婁日罷吟詩

辛未季夏日平公李晉植題

平公：李晉植（경기·성남시）

好古有時搜斷碣
研經婁日罷吟詩

琴亭學人
崔良順

琴亭：崔良順(서울, 강동구)

好古有時搜斷碣
研經婁日罷吟詩

辛未夏日由庭吳瑒淑

由庭：吳瑒淑(서울, 영등포구)

好古有時搜斷碣
研經婁日罷吟詩

沃田朴多斗

沃田：朴多斗(부산, 동래구)

好古有時搜斷碣
研經婁日罷吟詩

李潤來

瀟山：李潤來(전북, 군산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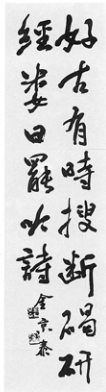
好古有時搜斷碣
研經婁日罷吟詩

辛未夏光齊李淮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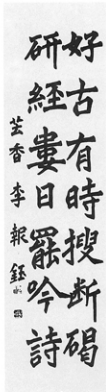
光齊：李淮榮(충북, 충주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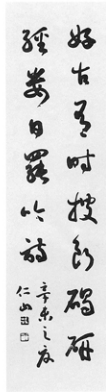
墨農：曾永鎬(충북, 옥천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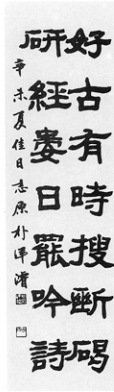
東鳩：金京泰(경기, 안양시)



芸香：李報錫(충남, 온양시)



仁山：劉承卓(서울, 구로구)



志原：朴洋澗(경기, 성남시)

好古有時搜斷碣
研經幾日罷吟詩

辛未夏
約昇
秋
於
秋
於
秋
於

約昇：姜顯夏（경기, 광명시）

好古有時搜斷碣
研經幾日罷吟詩

辛未秋夏
愚齊
又
崔圭三

愚齊：崔圭三（인천시, 북구）

好古有時搜斷碣
研經幾日罷吟詩

瑞溪
趙仁善

瑞溪：趙仁善（서울, 동작구）

好古有時搜斷碣
研經幾日罷吟詩

辛未夏
仲泉
朴長一

仲泉：朴長一（부산, 남구）

好古有時搜斷碣
研經幾日罷吟詩

李仁煥
石川

石川：李仁煥（대구, 달서구）



蘭田：康法善(서울, 종로구)



晚翠：金容濩(경기, 과천시)



研農：崔守鉉(경북, 포항시)



蕉庭：崔有珣(경기, 과천시)



東菴：沈昌燮(경기, 성남시)



松庭：李瓊蘭(서울, 동대문구)



小玄：李麗春(서울, 서대문구)



志燕：金玉任(서울, 은평구)

入賞科生名單

等位	姓名	住 所	等位	姓名	住 所
駐元 駐元	金龍錫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별산상가 304호	特選	李仁銘	서울시 노원구 공릉1동 68 / 60 남정연립B동 201
次上	張用南	서울시 송파구 가락본동 50		張慶烈	서울시 서초구 반포1동 60 / 4 미도상가 2층 1 / 1
	崔炯柱	서울시 강서구 등촌2동 53 / 1 벼하서예3층		崔弘圭	서울시 강동구 천호2동 317 / 8 혼민서예학원
次下	任仁勳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5		周永甲	부산시 남구 대연3동 54 / 1
	李花守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4 주공 ④ 1003동 602		金龍範	경기도 안산시 본오동 96 / 15
	金龍業	전북 전주시 완신구 남노송동 139 / 11		張秀嫻	전북 군산시 개북동 12 / 9
	崔李植	전북 전주시 고사동 1가 405 / 3 가린오피스텔		曠守品	전북 군산시 금광동 고려화방
	崔銀哲	경기도 부천시 남구 외안동 85 현대 ④ 가동 302	入選	姜大主	서울시 서초구 방배2동 436 / 28 동역서예
	李周炯	서울시 구로구 개봉2동 238 / 25		宋根福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팔달로1가 93 평신서예원
特選	禹日權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22 / 8 영도시장 ④ 410		梁喜錫	서울시 도봉구 수유3동 32 / 16
	崔容準	서울시 도봉구 방문1동 406 / 18 우이빌라 6동 203호		梁正福	광주시 동구 충장로4가 11 / 1
	金建杓	대구시 동구 신암5동 101 / 3		李長煥	서울시 강동구 길동 361 / 2 산하서예학원
	金貞子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83 / 3 옥산B / D 3		金一性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17 / 2 시영 ④ 80동 301
	孫賢周	전북 군산시 문화동 80 / 34		朴明培	서울시 도봉구 수유2동 355 / 6 동인주택 나동 301
	金範洙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2동 232 / 66		金榮培	경기도 부천시 남구 외안동 199 / 2 204호
	鄭盛元	전북 이리시 신흥동 33 / 20		尹榮圭	서울시 강서구 영창동 251 / 5 동마루 ④ 311

등	位	姓	名	住	所
入選	李	普植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주공 ① 1 / 304		
"	崔	良順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삼익 ④ 502 / 810		
"	孫	瑞淑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3동 신길1차 우성 ④ 106 / 607		
"	朴	多斗	부산시 동래구 수안동 49 / 6		
"	李	潤來	전북 군산시 경장동 490 / 19		
"	李	淮榮	충북 충주시 북방동 215 / 14 방		
"	朴	洋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 168		
"	劉	承卓	서울시 구로구 수궁동 190 / 12		
"	李	報廷	충남 은양시 권곡동 56 / 33		
"	金	京泰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뉴골본 ④ 다동 400		
"	姜	顯夏	경기도 광명시 하안1동 고충주공 ④ 518 / 702		
"	曹	永福	충북 옥천군 옥천읍 장아리 43		
"	李	仁煥	대구시 달서구 진천동 91 / 2 첫달서역전		
"	朴	長一	부산시 남구 문현3동 244 / 1		
"	趙	仁香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355 / 1 공공 ④ A동 401		
"	崔	圭三	인천시 북구 부평4동 10 부평B / D 3층		
"	尹	成勳	경기도 이천군 백사면 송말리 영원사		
入選	李	頤雨	부산시 중구 신창동 2가 34 / 2		
"	黃	仁福	충남 은양시 권곡동 56 / 33		
"	姜	顯粉	부산시 사하구 하단동 502 / 11		
"	崔	姬和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2 / 511		
"	金	明順	서울시 양천구 목4동 775 / 6		
"	朴	基岳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 74 / 6 삼영빌라 나동 201		
"	曹	貞順	부산시 남구 광안4동 734 / 25		
"	朴	榮信	서울시 서초구 반포2동 주공 ④ 211동 108		
"	崔	有珪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37 주공 ④ 108 / 406		
"	崔	守鉉	경북 포항시 항구동 산포가든 나동 203		
"	金	容洙	경기도 과천시 문현동 115 / 423		
"	康	法善	서울시 종로구 당주동 100 새공 ④ 655		
"	金	玉任	서울시 은평구 용암동 111 / 5		
"	李	龍春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2동 132 / 65		
"	李	瓊蘭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3동 64 / 1 극동 ④ 1동 811		
"	沈	昌燮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13 / 7 동		

두번째의場을 마무리 하면서

墨鄉의 傳統이란 自盡는 突然이 이룩되는 것도 아니요 이룩되어서도 안된다. 禮山이 墨鄉으로 揭揚된 것은

- 一. 朝鮮朝前期 四大名筆의 한분인 自庵 金 楨 先生이 仁壽體를 이룩한분으로 新岩 宗敬里에서 出生이요 돌아가신 곳이요
- 二. 宣祖때 領相이요 草聖으로 推仰 받고 있는 鶴溪 李山海先生이 大達 方山里이요
- 三. 東國眞體의 始祖인 玉潤 李 淑先生이 古樸 紙谷(上長川里)이요
- 四. 東國眞體를 대성해 놓은 眞靖 李匡師先生이 鷹峰 八事山下麓이요
- 五. 鍊(金石文)과 帖兩派의 特長을 아울러 秋史體를 남긴 秋史 金正喜先生이 新岩 龍宮里이다.

禮山の 書蹟가 이러하기에 墨鄉이란 夫感을 주고 받고 하는가운데 人地相得이란 말도 나오게 된다.

이러한 墨鄉의 傳統을 揭揚하는데에 書藝作品의 創出을 亦 傳統이던 硯科場을 再現 하고當日 書藝에當日 施實과 이에 國樂의 和音律로서 白日場의 格도 생각하면서 秋史先生을 追慕하는 古樸한 書藝의 造와 精神을 繼承하는 길로 삼았다.

첫번째 보다는 夫感을 주는 書家가 삼매나 넣었다는데 고맙게 생각하며 다음 세번째는 마음을 가다듬고 期約해 본다.

이번에 場을 成熟시켜주기 爲해서 全羅北道 道立國樂院의 協贊과 全國經濟人聯合會 長남의 特別 配慮와 오성장학의 吳長燮 理事長과 在京鄉里人 金顯佑會長 金東哲社長 趙鍾奭先生을 비롯한 協贊人士에 感謝의 人事를 잊을 수 없다.

그리고 이날 酬答에 喜意를 얻어 주신 元老와 中堅書藝家의 勞苦에 심심한 고마운 인사를 드린다.

특히 이場을 마무리하는 展示場을 爲해서 心慮와 周旋해준 文化部 康大燮 地域文化 課長과, 外部의 展示를 그 동안 許하지 않았든 國立中央圖書館의 鄭熙川 課長님이 快히 承諾해 주신데에는 感銘이 깊었다.

李 恒 護 (禮山文化院長)

（不許複製）

印刷：光明印刷公社

（0458）3314102

第二回

秋史先生追慕全國書藝白日場
受賞作品展

發行：社團法人

禮山文化院

（0458）212441